광주 구도심 한옥이 뜬다

동구 동명동·장동 일대 100여채
예술가 작업실로 선호… 가격도 들썩

2년 전 광주지역 사립대 미대 교수로 부임한 A씨는 최근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132㎡(40평) 크기의 한옥을 구입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지어진 이 옛집은 기둥과 처마에 수 십년 세월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데다, 도로에서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자리잡아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A씨를 흡족케 했다.

A씨는 "광주의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한적한 곳의 작업실을 구하기 위해 지산동과 계림동 등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 동명동의 한옥들이 옛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며 "조금만 손보니 훌륭한 작업실로 재탄생했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광주 구도심을 대표하는 동명동과 장동 일대의 한옥이 인기를 끌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빈집이 늘어갔던 곳이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효과와 더불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예술가 및 작가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매물을 찾기 힘들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

동구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시절 지어진 적산가옥과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은 이 지역에 200여 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건축물대장이 형성되기도 전인 1930~40년대에 지어진 옛집들은 아직도 100여 채가 남아있다. 그 시절 광주의 중심지였던 만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지었던 집들이다.

이런 한옥은 적산가옥과 한옥을 반반 섞어놓은 듯 처마와 기둥은 한옥을 본 땄으면서도 일본풍의 'ㄱ' 형태의 정원이 있다.

대부분 132~231㎡(40~70평) 크기의 작은 집들이다 보니, 별채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분위기를 찾는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도심 주변이라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서도, 골목만 들어가면 한적해 작업실을 찾는 작가들이 잇따라 몰려들었다.

한옥을 구입, 작업실을 마련한 작가 B씨는 "동명동은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인데다, 예전부터 광주의 양반들이 거주했던 특별한 지역"이라며 "50년이 넘은 집이더라도 손보기에 따라 개성있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작가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이 지역의 한옥 가격 및 땅값도 상승중이다. 인근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전남도청이 금남로에 있던 시절 3.3㎡당 400~600만원 하던 지가는 도청 이전 뒤 200만원 대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400만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99~132㎡(30~40평) 규모의 한옥은 최저가를 기록하던 5년 전 5000만원 대 이하로 집값이 떨어졌지만, 이 역시 6000~8000만원 대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매매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도 이 지역의 특징이다. 동명동은 과거 부와 명예를 누렸던 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까닭에 누군가 집을 판다는 소문이 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매는 공인중개업소에 등록된 매물이 없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 구매자가 '알음알음'으로 진행한다.

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동명동의 옛집을 찾는 고객 10명 중 3명은 예술관련 사람일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라며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을 앞두고 있어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한옥은 공급량이 한정돼 가격이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서화합 '섬진강市' 만들자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 '남중권 자율통합 세미나'서 제안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11일 동서 지역 화합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영·호남의 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사천을 하나로 통합하는 '섬진강시' 건설을 거듭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중권 자율통합을 위한 섬진강시 구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동서통합지대'의 기본 구상안이 최근 발표됐는데, 전남 여수·광양·순천·구례와 경남의 하동·남해·진주·사천 등 8개 시·군을 대상 범위로 설정했다"면서 "그동안 내가 주창해온 '섬진강시'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통일한국을 내다보고 세계로 나아가려면 영·호남이 화합 속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남해안 개발이야말로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현재 약 90만 명이 사는 이 지역이 '섬진강시'가 되면 얼마 안 가 인구 150만 명의 광역시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사천을 묶어 지역화합특구로 만들자는 내용의 '지역화합 특구법'을 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섬진강시' 건설을 제안하는 등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 특구 지정에 힘을 쏟아왔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여 명과 관련 지역 기초단체장,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고, 최상철 서울대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전남도 올해 역대 최대 1157명 공채

지난해보다 30% ⬆… 베이비부머세대 퇴직 증가따라

전남도가 올해 개도(開道) 이래 최대 규모의 신규 공채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12일자로 올해 일반직 공무원 1157명을 공개채용하는 내용의 2014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용 기관별로 전남도가 28명, 일선 시·군이 1129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49명, 8급 40명, 9급 1007명, 연구사 22명, 지도사 39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888명보다 269명(30%) 늘어난 것으로 개도 이래 최대 규모다.

채용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1954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퇴직하는데다 사회복지직 증가 요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의 채용 인원도 대폭 늘려 장애인 46명, 저소득층 41명, 북한이탈주민 3명, 고졸자 18명과 올해 처음 선발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4명 등 총 172명은 일반 응시자와 분리해 모집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2014년 1월1일 이전부터 주소지가 전남도내로 돼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전남도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7급(연구사·지도사 포함)의 경우 20세이상(199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8·9급은 18세 이상(19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할수 있다. 올해 시험은 모두 4차례 예정돼 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영암 AI 의심 신고… 3km내 오리 살처분

토종닭 자율비축 유도위해
농식품부, 마리당 1200원 지원

11일 영암군 영암읍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도는 이날 "이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3km) 내 오리 2만7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종오리농장은 지난달 30일 AI 확진 판정된 영암 덕진면 종오리 농장의 방역대 안에 있는 지역(5㎞이내)으로 그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 농장의 사육 규모는 종오리와 육용오리 등 1만1500마리다.

전남도는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AI 최종 판정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농장의 반경 500m내 오염지역에는 닭오리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위험지역 내(3㎞)에는 육용오리 농장 1곳에서 1만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번에 2개 농가를 포함하면 26개 농가에 살처분 닭·오리는 46만7000마리로 늘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위축된 토종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종닭 사육농가와 민간 가공업체간 토종닭 100만 마리 자율 비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도축비, 운송비, 보관비 등을 고려해 비축 지원금으로 토종닭 1마리당 12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국기초의회의장協, '임을 위한…' 5·18 기념곡 지정 촉구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7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건' 등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동찬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고된 여정을 품은 역사이자, 5·18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라며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정 발전에 공이 많은 박춘수 광주 남구의회 의장과 장재성 서구의회 의장에 대해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분향했다. /최권일기자 cki@

남북 오늘 판문점서 고위급 회담 개최

남북이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로 대표단을 꾸렸다.

이번 접촉은 북측의 제의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측은 지난 8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전격적으로 제안해왔고 남북은 이후 수차례 물밑 협의를 통해 11일 최종 합의를 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 · 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전화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궁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